

2026년 9월 23일

미국 주식

미국 주식

CPU가 주도주가 될까?

메타(Meta)가 AI 에이전트 앱 뮤즈(Muse)를 출시했습니다. 에이전트로 서비스 형태가 바뀌면 데이터센터가 감당해야 할 추론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가상 환경과 도구 제어 및 API 호출을 지휘하는 작업은 GPU가 아닌 CPU가 전적으로 전담합니다. 서버 내 CPU 탑재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9/21 미국 증시에서 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 폭이 메모리 대비 컸습니다. 메모리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에이전트 작업이 늘어날수록 HBM과 DDR5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시장의 공급증이 과거 GPU 수요에서 추론 인프라의 증설 속도와 AI 에이전트 사용량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메타(Meta)가 촉발한 AI 에이전트 시장

미-이란 협상 기대감과 사우디 원유 수출 회복에 유가가 하락했다. 이익 상승 속도를 넘어섰던 미국채 금리 발작이 안정되며 주식시장 압박도 완화됐다. 업종별로는 메타의 AI 에이전트인 Muse가 주목받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기술주 반등을 살펴보면 시장의 반응은 이전과 달랐다. Muse로 에이전트 시장 규모 확대가 전망되자 CPU 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과거 GPU 수요에 주목했던 시장이 추론 시장 성장과 함께 AI 에이전트 사용자 확대 및 CPU 수요 확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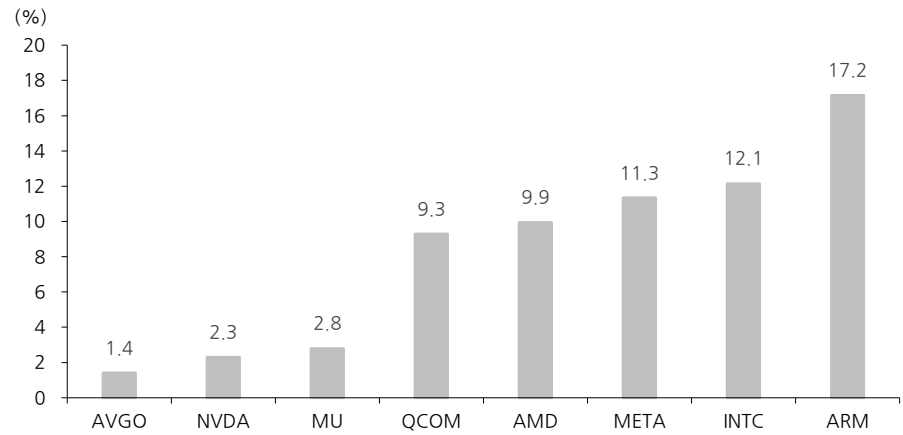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CPU 비중이 크게 올라간다. 기존 챗봇은 일회성 질의응답 중심으로, 대규모 행렬 연산을 수행하는 GPU 의존도가 압도적이었다. AI 에이전트로 전환되면 지속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가상환경/도구 제어 등 순차적인 작업 처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CPU 사용량이 대폭 확대된다. 에이전트 중심 추론 서버로 분류되면 GPU 대비 CPU 비율이 1:1 혹은 그 이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된다. 9/21 증시에서 CPU 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던 이유다.

메모리의 비중을 줄이자는 의견은 아니다. 메모리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여전하고, 펀더멘탈은 변함없다. 인지해야 할 부분은 메모리 업체도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이전트 작업이 늘어날수록 HBM과 DDR5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필연적이다. 범용 레거시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이며, 마이크론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 차주 마이크론 실적에서 발표되는 CAPEX 가이드스가 중요하다. 전년 대비 3배 미만으로 제시되면 메모리 초과 공급 우려는 제한된다.

메타를 통해 CAPEX의 현금 회수 가능성은 확인됐다. 추론 시장의 확장은 필연적이며, 실제 AI 에이전트 사용자 증가율과 추론 서버의 증설 속도가 다음 관건이다. 추론 서버 증설이 본격화되면 수혜 범위는 메모리를 넘어 데이터센터 컴퓨팅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시장의 핵심 질문은 GPU 수요에서 AI 에이전트 사용량으로 이동했으며, 추론 인프라가 얼마나 빨리 증설되는지 여부다. 고성능 위주의 메모리 기업 선별과 CPU 및 AI 서버 업체의 병행 전략이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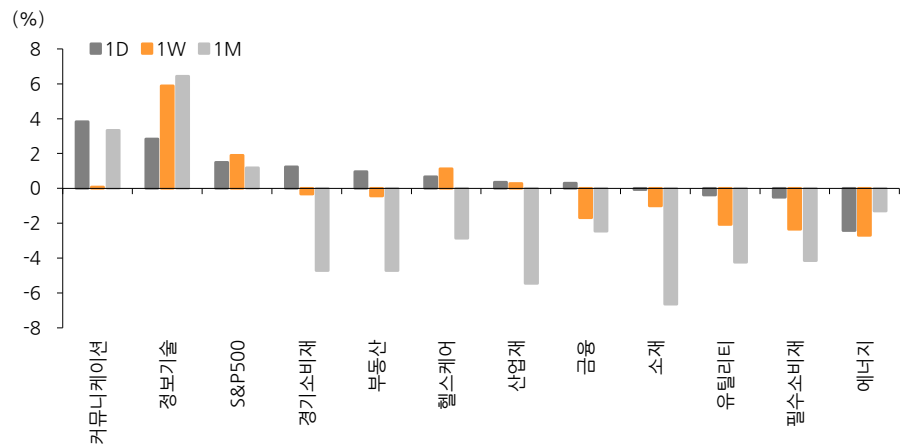
▶미국주식 신승윤
seungyun.shin@hanwha.com
3772-7428

[그림1] 메모리보다 컷던 CPU 관련주 상승세(09/21)



자료: Factse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업종별 주가 수익률 (09/21),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 중심 반등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9월 23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승윤)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 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 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6월 30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6.3%	3.7%	0.0%	100.0%